

광주여대 치위생학과, 함평서 의료봉사



광주여대대학교(총장 주자문) 치위생학과는 최근 함평군 함평읍 옥산리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사랑실은 건강천사'봉사단과 함께 주민을 대상으로 구강보건교육 등 의료봉사를 실시했다.

中 장쑤성 장두 직업교육단 호남대 방문



중국 장쑤(江蘇)성 장두(江都) 직업교육집단 연수단 디바오원 부교장 일행과 학생·학부모 40여명이 최근 호남대학교(총장 서강석)를 방문, 학교시설을 둘러보고 향후 교류에 대해 협의했다.

보성소방서, 고층 두방산 산불예방 캠페인



보성소방서(서장 박병주)는 최근 봄 행락철을 맞아 고층군 동강면 두방산 등산로에서 산불예방 캠페인을 실시했다. (보성소방서 제공)

김석균 해양경찰청장, 서해 치안현장 방문



김석균 해양경찰청장은 봄철 성어기를 앞두고 현장 대응태세 점검을 위해 헬기를 탑승해 조업현장을 점검하는 등 1박 2일 일정으로 서해 치안 현장을 방문했다. /양세열기자 hot@kwangju.co.kr

“곤로랑 별 것이 다 있소...구경 한번 와보랑께”

옛 생활용품 3000점 보유 강진 와보랑께 박물관 김성수 관장

“남들한테 작품을 보이는 게 어렵지만, 용기를 내서 작품을 열게 됐습니다.” 강진군 병영면 도봉마을에는 지나가는 이의 발길을 붙잡는 독특한 이름의 박물관이 있다. ‘와보랑께 박물관’ 전라도 사람이 아니라면 무슨 뜻인지 이해하기 쉽지 않은, 전라도 사람이라도 잠시 생각해볼 만하다. 박물관에는 이름만이나 푸근한 인상의 김성수 관장(67)이 있다. 그는 그림을 전공하지 않았지만 어릴 적부터 그림에 대한 관심을 놓지 않고 노력해 지난 15일부터 30일까지 두 번째 개인전을 열었다. 6월에는 순천, 12월에는 서울에서 개인전을 열 예정이다.

지켜준 부의살림, 사람살이의 길을 열어 준 옛 책, 지친 마음을 어르고 달래주던 놀이도구까지 ‘와보랑께 박물관’에는 한 때 누군가의 손길에 익숙했던, 이제는 세월의 흔적이 커져서 쌓여있는 물건들이 과거의 이야기를 속삭이고 있다. 그 많은 물건 중 그가 가장 아끼는 물건은 낡은 곤로다. “신혼시절에 국도 풀이과 추위를 막아주던 곤로가 제가 제일 아끼는 것이죠. 이걸 보면 신혼 생활이 떠오르거든요.” 곤로를 이야기하는 김관장의 얼굴에 금세 미소가 번졌다. 오랜 도회지 생활에 몸도 마음도 지쳐 자연을 찾아, 여유를 찾아 고향 강진으로 내려온 지 30여 년. 그는 “자연에 간직한 물건들이 사라지는 것을 안타까워하며 하나 둘 물건을 모으기 시작한 것이 오늘에 이르렀다”며 “낡았지만 민초들의 삶이 고스란히 녹아있는 물건에서 인생을 발견한다”라고 말했다.

농기구·부엌살림 등...6월 순천·12월 서울서 전시회

수관장(67)이 있다. 그는 그림을 전공하지 않았지만 어릴 적부터 그림에 대한 관심을 놓지 않고 노력해 지난 15일부터 30일까지 두 번째 개인전을 열었다. 6월에는 순천, 12월에는 서울에서 개인전을 열 예정이다. “어린 시절 고향집부터 사라져가는 사투리를 형상화한 작품이 많아요. 남들이 그리지 않는 개성 있는 작품을 만들고자 선택한 게 사투리였죠.” 독창성을 추구하는 화가인 김 관장이 운영하는 박물관에는 직접 모은 3000여 점의 전시품이 즐비하다. 농부의 수족처럼 고생한 농기구, 식구의 건강을

가 제가 제일 아끼는 것이죠. 이걸 보면 신혼 생활이 떠오르거든요.” 곤로를 이야기하는 김관장의 얼굴에 금세 미소가 번졌다. 오랜 도회지 생활에 몸도 마음도 지쳐 자연을 찾아, 여유를 찾아 고향 강진으로 내려온 지 30여 년. 그는 “자연에 간직한 물건들이 사라지는 것을 안타까워하며 하나 둘 물건을 모으기 시작한 것이 오늘에 이르렀다”며 “낡았지만 민초들의 삶이 고스란히 녹아있는 물건에서 인생을 발견한다”라고 말했다. 2010년 1월 지금의 박물관이 문을 열기까지 힘든 일도 많았다. ‘와보랑께 박물관’이 들어서기 전



창고를 개조해 만든 박물관은 시설이 열악했다. “강진 청자문화제를 앞두고 서울에서 손님들을 초청해 박물관을 보여드리려 했는데 비가 많이 왔어요. 지붕에서 물이 떨어지고 바닥에 물이 고이는 바람에 전시품 대부분이 물에 젖어서 강진군에서 새로운 박물관 건립에 대한 논의가 시작됐죠.” 그날의 사건이 전화위복이 돼 2층짜리 박물관이 들어섰다. 물건이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여전히 공

간이 협소하지만 박물관은 인기가 높다. 벗집으로 짚신 만들기, 매실차·매주 만들기 등 체험활동도 할 수 있어서다. 김 관장은 “박물관을 찾아오시는 분들이 이점표가 없어서 찾아오기 힘들어 한다”면서 “제가 즐거워서 물건을 수집하지만 우리 옛것을 간직한 박물관에 좀 더 많은 분들의 관심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양세열기자 hot@kwangju.co.kr

“후배들 꿈 향한 밑알 되었으면”

정명수 조선대 교수 학교발전기금 5000만원

“30여년 동안 모교에 근무하면서 마음의 빚을 졌습니다. 이제 정년을 앞두고 학교와 후배들에게 작은 씨앗이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조그만 용기를 냈습니다.” 정명수 조선대학교 체육학부 교수가 지난 2일 오전 학교발전기금 5000만원을 기탁했다. 정 교수는 “대단한 일을 한 것도 아닌데 부끄럽다”며 “모교가 힘든 상황에서 조그만 액수이지만 크게 쓰일 수 있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1980년대 조선대에 들어와서 민주화 과정을 겪었고, 조선대가 성장하는 모습을 지켜보았습

니다. 조선대와 역사를 함께했다는 데 보람과 긍지를 느낍니다.” 정년을 4년여 앞둔 정 교수는 올해 교육대학원에 입학해 한국어를 전공하고 있다. 한국 어교원 자격증을 취득하면 이주민이나 새터민 등을 대상으로 봉사활동을 하고, 기회가 되면 외국에 나가 일할 계획도 세우고 있다. 정 교수는 “한국어 교육을 공부하는 것이 외국어를 배우는 것보다 더 어렵지만 열심히 공부해서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하고 싶다”며 “조선대가 66년의 역사 속에서 내실을 갖



육지도자·경기지도자연수원장, 뉴질랜드 벨러랫 대학방문교수를 지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개콘’ 김기리-신보라 “우리 연인”

개그계에 또 한 쌍의 스타 커플이 탄생했다. KBS 2TV ‘개그콘서트’에 출연 중인 개그맨 김기리(28)와 개그우먼 신보라(26)가 최근 교제를 시작한 사실이 확인됐다. 김기리의 소속사인 큐브엔터테인먼트와 신보라의 소속사인 YMC엔터테인먼트는 “KBS 25기 공채 개그맨 동기인 김기리와 신보라가 2년 넘게 ‘개그콘서트’에 함께 출연하며 호감이 생겼고 최근 연인으로 발전했다”고 지난 2일 밝혔다. 두 소속사는 이어 “둘은 함께 출연 중인 ‘생활의 발견’ 아이디어를 짜고 연기 연습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서로에게 관심을 갖게 됐다”며 “이제 막 방송계에서 활발히 활동하는 친구들이 만큼 따뜻한 시선으로 응원해줬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네번 더 가면 전국노래자랑 300회 참관

익산 이병철·박정자씨 부부

“전국 방방곡곡을 누비며 전국노래자랑을 볼 때가 가장 행복해요.” 일요일 낮이면 여덟집 ‘딩동댕’ 소리와 함께 안방극장을 찾아오는 KBS 전국노래자랑을 11번째 참관한 노부부가 있다. 이 프로그램의 ‘광팬’임을 자처하는 전북 익산시 오산면 이병철(75)·박정자(73)씨 부부는 1993년부터 11번째 전국 곳곳을 찾고 있다. 이제 부부가 현장에서 본 전국노래자랑은 무려 296차례나 된다. 이날 말이면 300회를 채운다. 이들은 노래자랑 녹화가 열리는 날이면 모든 일을 제쳐놓고 현장에 나타난다. 현장에 도착하면 바로 빨간 커피티로 갈아입

고 방방석 맨 앞줄에 앉아 신나게 춤을 춘다. 관객들과 허심탄회하게 어울리는 게 좋다고 한다. 사회자 송해 씨는 노부부가 나타나면 지역주민에게 소개부터 하고 “이분들이 바로 전국노래자랑 홍보대사”라고 추어올린다. 이들이 전국노래자랑과 인연을 맺은 건 1993년. 아내 박씨가 허리디스크 수술을 받은 뒤 운동하라는 의사의 권고로 취미 삼아 전국노래자랑 녹화현장을 찾고 있다. 노부부는 노래하는 중간에 ‘땡’ 소리를 듣는 수모를 겪을지라도 연애인 못지않은 끼와 유쾌한 입담을 선보였던 참가자들과 함께 울고 웃었다. 동사일에 지친 이들의 유일한 낙은 전국노래자랑 구경이었다.



이들은 “우리가 돈이 많아 전국노래자랑 구경을 다닌 게 아니라 열정과 부지런함이 있기에 가능한 것”이라며 “건강이 허락하는 한 꾸준히 찾아 즐겨주 추억을 쌓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박창명 병무청장 오늘 광주 방문

박창명 병무청장은 3일 광주전남지방방위청을 방문, 업무보고를 받는다. 박 청장은 사천 출신으로 9군단장, 국방대 총장을 지냈고 예편한 뒤 경상대 초빙교수를 지냈다. /연합뉴스



생활 게시판

여러분의 생활정보를 실어드립니다. opinion@kwangju.co.kr 이나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2가 20-2 광주일보 생활게시판 담당자앞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TEL 062-2200-684 FAX 062-222-4938, 222-4918

화족

- ▲이종열(초대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임희숙(선경우 요양원장)씨 전남 경주군 고령면·한인숙씨 장녀 은정양=6일(토) 오전 11시 S타워 웨딩컨벤션 3층 메리골드홀.
- ▲이승진(이화폴리텍 대표이사)·김성애씨 차남 태훈군 이병민·장연희씨 장녀 윤화양=6일(토) 오후 1시 프라도호텔 2층 다이아몬드홀.
- ▲이정애씨 장남 박현구(가아자동차)군 이용국·김재순씨 장녀 기정양=6일(토) 오후 1시 40분 P&J웨딩홀 2층 주얼리홀.
- ▲박민수·김홍량씨 장남 상호(한화건설)군 강익선(광주동성고 교장)·김순애씨 장녀 기연(김&장 법률사무소)양=6일(토) 오후 1시 광주신안교회 예배당.
- ▲김재운·장영애씨 아들 레욱군 김인표(곡성군청)·변중희씨 장녀 구솔(일곡병원)양=7일(일) 오후 1시 S타워웨딩컨벤션 3층 메리골드홀.

- ▲김형식·박순희씨 장남 도현군 임석원(광주일보 발송부)·안절례씨 장녀 지애양=20일(토) 낮 12시 30분 일산 더 테라스 11층, 피로연=6일(토) 오후 6시 상무힐튼벤션 3층 다이아몬드홀.

동창동문회

- ▲송원고 총동문회(총동문회장 황명성) 정기 월례회의=3일(수) 오후 7시 상록웨딩홀 4층 잠미홀 062-384-7447.
- ▲목포고 제5회 동창회(회장 조재욱) 월례회=5일(금) 오후 6시 30분 금강산식당 062-224-0808.

중친회

- ▲전주리씨 대동종약원 광주·전남 지원 보성분원 정기총회=3일(화) 오전 11시 보성군 조성면사무소회의실 010-6514-5277.
- ▲재광 경주김씨중친회=5일(금)

- 오후 5시 30분 맛집 한겨레(금남로 카톨릭센터 뒤) 김재찬 010-6455-6296.
- ▲진주강씨 광주전남총회 자문회의 개최=5일(금) 오후 5시 종회 회관 3층 062-228-3368.
- ▲진주강씨 광산구 중회 제47차 정기총회 개최=6일(토) 오전 11시 광산시민연대 대강당 062-944-2383.
- ▲김해김씨 석성공파 호산문중 정기총회(회장 김정태)=7일(일) 오전 11시 영암군 신북면 양계리 넘소재 061-473-2033.

향우회

- ▲재광 보성군향우회(회장 박요주) 춘계총회(내고향 탐방) 개최=6일(토) 오전 8시 문화전당역 전일빌딩 뒷편 017-365-7865.
- ▲재광 곡성 향우회(회장 김재정)=7일(일) 오후 7시 남도예술영양물습합(두암동) 062-266-5566.

알림

- ▲여성발전센터 무료 상담=가정 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상담. 국번없이 1366. 휴대전화를 사용할 경우 062-1366.
- ▲주간지지 서비스(주 5일 운영) 회원=정신건강상담서비스 무료제공 및 만성정신질환자에 대한 사례관리(가정방문) 서비스 제공 광주동구청 보건건강증진센터 062-233-0468.
- ▲신용사회 만들기 시민연합 채무 상담=채무로 고통받는 사람과 신용불량자들의 신용회복을 위해 채무상담(무료) 매주 월~금 오후 5시 062-226-9001~2.
- ▲홀트아동복지회 국내인양 가정="인양은 가슴으로 낳은 사람입니다" 인양을 통하여 행복한 가정을 원하시는 분들께 도움을 드립니다.(24시간 상담가능) 홀트아동복지회 광주주부회 062-227-8877.

모집

- ▲주간재활프로그램회원=만성정신질환을 위한 정신재활프로그램 서비스 제공(주 5일) 정신건강상담서비스 무료제공, 광주동구청보건건강증진센터 062-233-0468.
- ▲습마체협 및 개인레슨=광주 광산구 오운동 465 광산스마랜드 010-8615-6500.
- ▲꿈을 돕는 사람들(광주학당)=한글, 기초반, 초등반, 중등반, 영어기초반, 한문, 컴퓨터 등 수시모집(무료강의), 서방시장안국 관리사무소 062-512-5788, 062-262-1542.
- ▲리본공예 수강생=취미반, 지도자반, 창업 자격증반 수시모집 010-9853-2121.

부음

- ▲김우만(유진약품 창업주 회장)씨 별세김세형(부회장)·구연(대표이사)·승연(건강한 미래약국 약사)씨 부친상 황형하(방백한의원장)·박병연(광주시민약국 약사)씨 빙부상=

- 발인 4일(목) 조선대병원 장례식장 1분향소 062-220-3352.
- ▲미재홍씨 별세 점선·만선·장선·정민·장호·영승·영애씨 부친상=발인 4일(목) 조선대병원 장례식장 2분향소 062-231-8902.
- ▲조경희씨 별세 김재승(용인샘물 호스피스)·육자·인자·영희·영진씨 모친상=발인 4일(목) 조선대병원 장례식장 3분향소 062-231-8903.
- ▲김연숙씨 별세 재광·재범·재운·

- 순미씨 부친상=발인 3일(수) 무등장례식장 101호 062-515-4488.
- ▲박병기씨 별세 복현·유현·윤현·남현·순자·선자씨 부친상=발인 3일(수) 무등장례식장 203호 062-515-4488.
- ▲김연봉씨 별세 차상수·상덕·상순·상례씨 모친상 김보근(디케이산업)씨(주) 회장)씨 빙모상=발인 4일(목) 광주 스키장장례식장 201호 062-951-1004.

謹 삼가 故人의 冥福을 빕니다 弔

故 송복순 (여/87세) 子/子婦: 심대섭/지옥순, 김옥순, 효성/면경옥, 이설/이옥경, /이연숙 女/孫: 심현덕/이종주, 심재홍, 재운, 재필, 재경 •호실: 401호 •발인: 4월 4일 •장지: 장성 남면 선영 •연락처: 227-4383	故 김단례 (여/73세) 子/子婦: 임병재/최희경, 임택희/최신영 女/孫: 임택희/최신영 •호실: 402호 •발인: 4월 3일 •장지: 영락공원 •연락처: 227-4314
故 임봉례 (여/80세) 子/子婦: 박종대/김주연, 연대/김경숙, 선대/임향란 女/孫: 박은숙/정홍호, 지숙/류성선, 류·박·신·신호 •호실: 101호 •발인: 4월 4일 •장지: 담양 천주교 묘지 •연락처: 227-4385	故 박동열 (남/76세) 子/子婦: 박민국/정경미, 민호/조은희 女/孫: 박민영/김철환 •호실: 102호 •발인: 4월 3일 •장지: 영락공원 •연락처: 227-4385

마음까지 편안
孝 金 浩 長 례 식 堂
http://www.mykumho.com 문의 (062)227-4000